북한의 '생애주기'적 조직생활 변화와 내구력 평가

North Korean Organization Life and Evaluation of Durability

김 종 수 (Kim, Jong-su) *
(E-mail : jslobo@naver.com)

논문접수일 : 2008년 11월 10일
논문심사일 : 2008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17일

* 학위취득대학 : 동국대학교
현직: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원, 동국대학교 강사

www.kci.go.kr

북한 ‘생애주기’적 조직생활 변화와 내구력 평가

<국문요약>

북한은 1995년 대홍수 이후 본격화 된 식량난과 경제악화가 20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형상으로는 아직까지 체제에 관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공급에 의한 통제가 붕괴된 상황으로, 조직생활을 통한 통제와 억압기구를 통한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도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통제 체제, 특히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조직적인 통제의 결과로 기인한다는 것을 부정하긴 힘들다.

이 논문에서는 주민통제 수단의 하나인 조직생활을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이와 함께 조직생활의 방안인 생활총화, 강연회, 학습회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주제어] 북한 조직생활, 사회통제, 근로단체, 청년동맹, 생애주기

www.kci.go.kr

I. 문제제기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1995년 대홍수 이후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만성적 식량난과 경제위기, 최근 김정일 '와병설'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외형상으로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위기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필자는 모든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감시·통제하는 촘촘한 사회통제체제에 주목하였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공급에 의한 통제, 조직생활·사상교양을 통한 통제, 물리적 억압기구를 통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북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앞의 3가지 통제수단 중 공급에 의한 통제는 거의 붕괴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조직생활·사상교양을 통한 통제 또한 부분적으로 이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제 수단 중 물리적 억압기구만이 자기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학교나 직장 등에서 당·근로단체와 같은 조직에서 조직생활을 한다. 이러한 조직생활에 대해 북한에서는 '사상단련의 용광로', '혁명교양의 학교'로 정의한다. 북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치조직 생활을 통해 '수령의 혁명사상'을 정치적 '양식'(糧食)으로 섭취하고 조직과 동료들의 방조(傍助)하에 자신을 단련해 나간다는 것이다(김정일 1997b, 58). 따라서, 북한의 사회통제 체제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완된 조직생활, 사상교양 통제의 '정상화'가 북한 체제의 내일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도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북한주민들의 조직생활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

www.kci.go.kr

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사상교양 수단인 조직생활을 조선소년단부터 청년동맹, 당·직업동맹·농민동맹·여성동맹, 인민반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적인 체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조직생활의 방안인 생활총화, 강연회, 학습회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은 문헌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연구 내용 중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북한사회 변화에 대한 내용들은 증언한 새터민의 주관이 반영된 것이기에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증언에서 보여주는 것이 완전히 객관적인 북한사회 전체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 이 논문에서는 조직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분석함에 따라 북한 최고지도부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과 같은 돌발 변수 등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Ⅱ. 북한의 사회통제 체제와 조직생활

1. 사회통제 체제와 정치조직

주류 사회학에서 사회통제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규범에 반하는 사회구성원의 일탈행위(deviant behavior)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제재를 의미한다.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사회통제 개념은 일탈적 행위가 사회규범을 침해함으로써 사회규범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어느 사회체제든지 본질적으로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통제 기제를 갖고 있다(이우영 1999, 4).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집단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사회통제의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확보된다. 국가사회주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권력의 집중을 추구하였기

www.kci.go.kr

때문에 당이 중심이 되는 공식적 사회통제가 당연하게 인식된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국가와 별도로 강력한 당 조직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타 사회조직은 당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사회구성원은 하나 이상의 사회조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조직을 통하여 체제가 지향하는 가치나 규범을 수용하게 되는 정도가 강하다(이우영 1999, 11-12).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도 주민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생활덕목으로 집단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사회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6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북한 헌법에서 규정했던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라는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사회생활의 기초인 조직생활은 북한주민들의 집단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기본 방식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집단주의 원칙의 요구대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언제나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다같이 헌신적으로 살아갈 것을 교양한다. 개인주의·이기주의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착취계급’의 사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주의 사상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한다(문명진 1987,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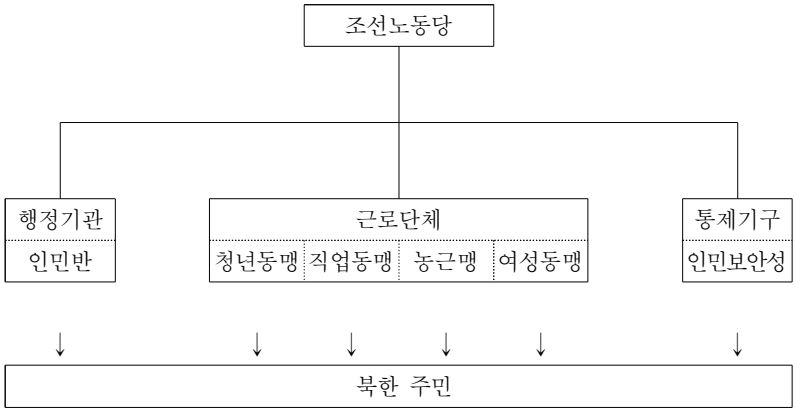
북한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조직생활을 통해 개인주의와 대립되는 집단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익히게 된다. 이로써 북한주민들은 자율적, 능동적인 개성 있는 자아를 형성하기 보다는 집단에 매몰된 타율적 수동적인 획일화, 전형화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이교덕 외 2007, 78). 북한 주민들은 집단주의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고 선전한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숨은 영웅들과 숨은 공로자들의 대열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을 따라배우는운동이 전사회적으로 벌어

www.kci.go.kr

지고 있다는 것이다(김정일 1997a, 295).

북한의 사회통제 체제는 사상적 통제를 담당하는 당의 통제와 이를 중층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통제, 즉 조직생활을 통한 통제 로 이루어진다. <표 1>을 통해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조선노동당을 정점으로 행정조직인 인민반과 근로단체인 직업동맹·농민동맹·여성동맹·청년동맹, 행정기관이면서 억압기구인 인민보안성 등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1> 북한주민 통제 구조



※ 자료: (정일영 2006, 30을 변형)

북한 사회통제의 특징은 사상통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상통제의 주체는 당이며, 당의 정치적 지도에 의해 각 근로단체들은 사상의 교양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곧 사상통제가 당의 지도로 국가 및 근로단체 조직을 통한 조직적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영철 2006, 114). 당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근로단체는 북한주민의 일상적 통제 기구로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에서는 근로단체를 “광범함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이며

www.kci.go.kr

당의 외곽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당을 '복숭아씨', 근로단체를 '복숭아의 살'로 비유하면서 "복숭아가 잘 크고 맛있게 익어야 안에 있는 씨가 잘 보호되고 실속 있게 여무는 것처럼 근로단체들이 일을 잘 해야 대중을 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울 수 있으며 당을 힘 있는 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사회과학원 1975, 75). 이처럼 근로단체들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조직으로서 영도체계에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표 2>는 북한주민들의 연령별, 직업별로 가입하는 근로단체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북한 근로단체 현황

단체명	가입 대상	활동연령
조선직업총동맹	기술자, 사무원 같은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31-65세 (여 60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협동 농장원, 국영 농목장,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자	31-65세 (여 60세)
조선민주여성동맹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30세 이상의 전업주부 가운데서 당원이 아닌 여성이 가입	31-60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해당 연령의 당원을 제외한 남녀 청년들이 가입	14-30세
	(소년단)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이 가입. 독자적인 기구 없이 노동당의 위임에 의하여 청년동맹이 지도	7-13세

※ 자료: (김종수 2006, 19)

근로단체에 대한 지도는 궁극적으로 조선노동당의 역할이다. 이에 당은 근로단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당의 근로단체에 지도역량 강화, 근로단체 간부 육성 강화, 사상교양 사업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김정일 1998a, 200-216).

북한은 근로단체의 성격을 크게 3가지로 설명한다. 먼저 근로단체는 대중적 정치조직이며 사상교양단체이다. 당이 근로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광범한 대중을 자기 주변에 묶어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영도적 지위를 확립하며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기 위해서

www.kci.go.kr

이다. 근로단체는 동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당과 수령의 주변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의 혁명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상교양단체, 정치적 조직이다.

둘째, 근로단체는 당의 외곽단체이며 인전대이다. 당의 외곽단체로서의 근로단체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옹위하며 당의 영도적 역할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근로단체는 자기 활동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당의 주변에 묶어세움으로써 당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당과 대중과의 연계를 보장하며 당으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조직적 단결의 힘을 체현한 위력한 당으로 만든다.

셋째, 근로단체는 당의 방조자(傍助者)이며 후비대이다. 이는 근로단체들이 당의 위업,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서 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당의 위업,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는 정치적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단체들은 동맹조직들을 당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조직들로, 방패의 대오로 만들고 당을 견결히 보위한다(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29-36).

물리적 억압기구로서, 북한주민을 통제하는 인민보안성은 보편적인 경찰업무인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치안질서의 유지기능보다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령과 당을 '결사옹위보위'하는 것을 제1차적 임무로 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치안질서 유지와도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주민성분 분류, 주민등록사업 관리, 공민증 발급, 주민들의 거주이전, 이동을 직접 통제·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최근 경제난 심화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단순범죄가 아닌 자본주의 성향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 등과 합동으로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적발하기 위한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전현준 2003, 23-27).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에서는 당이 중심이 되어 근로단체, 인민

www.kci.go.kr

반, 사회보안성 등이 주민들의 조직생활을 관리하고 있다. 북한주민에게 집단주의 정신 함양을 강조하여 사회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연령, 직업, 성(性)에 따라 가입하게 되는 정치조직을 통해 일상을 촘촘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직생활의 의미

국가배급 체제가 무너지고 국민 대다수가 각자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혼란 속에서도 북한체제가 적어도 내부적으로 공고한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곤경이 당과 정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부당한 경제제재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그동안 북한 당국이 철저한 폐쇄사회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펼쳐 온 반미반제의 선동선전활동과 교육의 효과인 것이다. 둘째, 개별 생계활동도 그 기본 줄기는 국가 공식기관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국가계획이 주도하는 공식적 생산활동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사적 생산활동에 깊숙이 개입하여 강력히 통제하는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당과 근로단체를 통한 이념관리 활동이다. 북한 주민통제 수단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소위 '생활총화'라고 부르는 자아 및 상호비판 활동은 체제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널리 확산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이승훈・홍두승 2007, 8-9). 이와 같이 북한주민에 대한 효율적 통제 체제는 위기 상황에서도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사회통제의 원리는 개인을 최대한 조직화함으로서 개인을 전체의 목적을 위해 동원하고 통제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정일동 1991, 51). 북한은 이를 위해 '거미줄'처럼 조직된 통제망, 즉 당과 근로단체와 같은 조직생활을 통해 북한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

www.kci.go.kr

다. 북한주민 전체가 조직생활을 통해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김일성 1996, 424).

북한에서는 조직생활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조직생활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구현한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인민들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조직 활동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조직생활을 통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구현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조직생활을 통해 혁명가적 품성의 하나인 조직성을 함양할 수 있다. 사람은 조직을 통해서만 사회정치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귀중한 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보람찬 투쟁 속에서 값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조직성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며, 사람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조직에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잘하여야 조직생활에 습성화되고 높은 조직성을 지닌 혁명가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본성에 있어서 고도의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인 공산주의운동은 혁명대오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치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을 요구하며,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은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지니게 된다”고 한다.

셋째, 조직생활은 ‘주체의 혁명관’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 방도이다. 김정일은 이른바 ‘주체의 혁명관’ 확립을 위한 근본방도로서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적 실천을 강조한다. 혁명관을 옳게 세우는 것은 공산주의 혁명가가 지녀야 할 중요한 사상 정신적 풍모인 바,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려면 혁명사상과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강한 조직생활과 혁명적 실천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해야 한다는 것이다(임순희 2002, 182-183).

www.kci.go.kr

북한사회 통합의 주요 기제인 조직생활은 간부들이 먼저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간부들은 당 조직생활에 모범적으로 참가하고 당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사업에서의 직급의 차이가 있지만, 당 생활에서는 높낮이가 따로 없다고 하면서 당 생활에서 이중규율이 허용되고 간부들이 당 조직의 지도와 통제에서 벗어나면 변질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평당원의 자세에서 당 조직생활에 참가하도록 지도한다(김정일 1998b, 412). 정치조직의 생활에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가 조직생활의 원칙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선전한다.

북한주민들의 북한체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의 하나는 조직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사실이다. 당조직, 청년동맹, 여성동맹, 인민반 등의 조직에서 일생동안 집단생활을 해야 하며, 생활총화를 하루라도 빠지면 고초를 겪는다. 청년동맹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달 이상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은 청년동맹원에게는 그 과오의 크기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권리정지, 후보청년동맹원으로 강등 등의 책벌을 준다(로동청년 1993년 2월 25일). 이는 청년동맹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북한 주민이 조직 생활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를 '평정서'라는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평정서란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유치원 높은 반이 될 때부터 개인별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에는 그 사람의 할아버지 때부터의 출신 성분과 조직생활에 참여한 정도, 평소의 행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적어 놓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된 주변 상황과 증거물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해 놓는다. 평정서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조직을 옮길 갈 때마다 일생 동안 함께 따라가는데, 특히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군대, 직장으로 옮겨 갈 때 청년동맹의 지도원이 평정서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김기순 외 2002, 156-157).

군대에서도 당 생활 평정서는 이름, 생년월일, 소속, 직무, 군사

www.kci.go.kr

칭호, 입당 연월일 등 기초사항에 관해서만 양식이 정해져 있으며 평가에 관한 부분은 작성자가 일정한 서술 방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당 생활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당 조직생활 및 당조직관점상의 문제, 즉 당을 어머니 당으로 생각하고 김정일 동지와 운명을 같이 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세포총회 등 각종 회의에 적극 참가해서 창의적 의견을 발표하는가, 일상적 당 생활 즉 생활총화, 학습·강연 참가정도 등이다(이대근 2003, 178-179).

북한에서 조직생활은 사람이 매일 3끼를 먹는 것과 같이 회의와 학습에 빠짐없이 해야 할 일이다. 모든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규범에 따라 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소극적 차원으로 조직생활에 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고 개인의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조직생활에 임하는 것은 '평정서'에 좋은 평가를 받아 당원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Ⅲ. '생애주기'적 조직생활의 實在(실재)

1. '생애주기' 조직생활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적 조직생활이 정착되어 있다. 북한의 어린이는 출생 후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탁아소 생활을 하면서 조직생활을 익히게 되고 정규적인 조직생활은 소학교 입학하면서 조선소년단 생활로부터 시작된다(통일교육원 2007, 236). 북한에서는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사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특히 통제된 북한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 이상의 것을 성인에게 제공해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민성길 2000,

www.kci.go.kr

228-229). 따라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왕성한 소년시기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 교양사업을 잘 펼칠 것을 강조하고(사회과학출판사 1973, 171), 만 7세부터 13세까지 소학교와 중학교의 청소년들을 조선소년단에 가입시켜 조직 활동을 통해 유일사상체계 확립시키고 있다. 소년단원은 1주일에 한번은 무조건 분단모임을 개최하여 생활총화를 하며, 꼬마계획 활동과 영화감상 모임, 소년단 규찰대 활동 등을 전개한다(김봉기 외 2007, 48-49).

<표 3>에서는 북한주민들이 생애주기별로 활동하는 사회조직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북한주민 연령별 사회조직 생활

<table>
<tr><td>연령</td><td>7~13세</td><td colspan="2">14~30세
17세 18세</td><td>31~60세</td><td>61~65세</td></tr>
<tr><td rowspan="5">활동 조직</td><td rowspan="5">조선소년단</td><td colspan="2">조 선 노 동 당</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청년동맹
(남·여 공통)</td><td>여성동맹
(결혼한 여성)</td><td>여성동맹
(전업주부)</td><td rowspan="2"></td></tr>
<tr><td rowspan="2">직업동맹
농근맹
(여성 근로자)</td></tr>
<tr><td colspan="2">직업동맹·농근맹
(남자 근로자)</td></tr>
</table>

북한 청소년들은 14세부터는 청년동맹원이 된다. 보통 중학교 4학년이 되는 14살부터는 모든 청소년들이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청년동맹은 당과 청년대중을 이어주는 인전대(transmission belt)와 당원과 간부를 양성하는 후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체제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오늘날 청년동맹은 어느 계급, 집단보다 앞에 서서 김정일의 지시를 관철하는 체제수호의 '전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 체제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건설 부문에서 청년동맹은 '속도전청년돌격대'를 통해 국가의 중요 건설

www.kci.go.kr

사업인 도로, 발전소, 공장 건설에 매진하여 성과를 낳고 있다. 청년돌격대는 경제를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과 함께 엄격한 규율로 생활을 통제함으로써 군대에 갈 수 없는 청년들을 체제순응적 청년으로 육성하고 있다.

북한 가족법 제9조에서는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 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함으로써 만혼을 장려하고 있다(김순영의 증언; 임순희 2006, 181). 청년동맹원 중 결혼한 여성은 여성동맹으로 이맹(移盟)하게 된다. 북한은 18세에서 24세까지의 남자 중에서 일반병을 뽑는다. 그런데 일단 징병되면 언제 군복무를 시작했는가에 상관없이 28세까지 군 생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제대 후 새로운 직장에 배치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갖는 등 자리를 잡으려면 30세 정도가 되어야 한다(신한승 1994, 119).

북한에서는 18세부터 당원이 될 수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에 의해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된 조선공민으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 규약을 준수”하는 사람만이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들은 당 회의와 학습을 비롯한 당의 조직 및 사상생활에 참가하여 조직 결정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생활을 정기적으로 총화해야 한다. 당 사업 이행에 대해 총화 하는데 상호비판, 자기비판을 한다. 당 사업에 대해 각 당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평가하고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분공을 통하여 세포 당원들은 정치·사상적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새터민 A의 증언; 정일영 2005, 49).

당원을 제외한 30세 이상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직업, 성에 따라 근로단체에서 조직생활을 한다. 근로단체들은 모든 동맹원들을 당 주위에 묶어 두고, 그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실천하도록 만들기 위해 조직생활을 강조한다. 공장·기업소의 노동

www.kci.go.kr

자들은 근로단체에 속해서 학습하고 강연회에 참석해야 하며, 공장에서 치루는 정치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만약 이유 없이 조직생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판대상이 되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새터민 C의 증언; 정일영 2005, 54).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통제하기 위해 20~40세대로 묶은 인민반이 조직되어 있다. 인민반은 정책집행의 말단단위이며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일상공간이다. 인민반은 인민위원회의 통제아래 당과 국가의 정책을 반원들에게 침투시킴으로써, 가정을 혁명화·노동계급화하고, 어린이들을 교양하고, 가정·거리·마을을 문화적, 위생적으로 꾸린다. 또한 국가사회재산을 애호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지원하며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여 불순분자들의 침투를 막는 등의 사업을 한다(노귀남 2006, 33).

인민반장은 인민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 동사무소와 주재원 보고를 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인민반장은 인민반 세대를 모두 관리해야 하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통제를 한다. 인민반에서는 가정주부들의 학습을 1주일에 한 번 실시하는데, 1, 3주는 학습을 하고 2주는 대중강연회, 4주에는 여맹, 노동당 등 조직별 강연회를 한다. 인민반에서는 정기총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하는데 이때 매 세대에서 세대주 혹은 가정주부 등 한명씩 참가해야 한다. 회의 내용은 계획수행 총화, 배정표 분배, 과제수행 파악, 선전자료, 동원과제 등을 알려주며 당조직, 안전부 등에서 받은 지시를 하달한다(편집부 2006, 191).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 60세까지, 여자는 55세까지 일한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65세, 여자는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표 3>에서처럼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가 되면 조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자는 만 60세, 여성은 55세 이상 연로보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로보장을 받는 사람도 당원이라면 당생활을 하고, 여성들은 여맹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당원이란 것이 '시끄러우니까' 당

www.kci.go.kr

생활을 안 한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이런 사람을 '제명당원'이라고 부른다(좋은벗들 2000, 270).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에서는 7세부터 공식적인 소년단 조직생활을 시작한다. 가치관이 확립하게 되는 청소년기에는 김정일의 '전위부대'를 자임하는 청년동맹에서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30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서는 당 또는 근로단체에서 조직생활을 하며 퇴직 후 연금생활자들은 인민반을 통해 조직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이 북한에서는 '생애주기'적 조직생활 체계의 확립을 통해 주민들의 이탈을 통제하고 있다.

2. 조직생활의 실재

이 절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조직생활을 형태별, 일별(日別), 주별(週別) 생활주기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주민들의 조직생활 형태를 생활총화, 사상학습, 분공(分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생활의 기초는 생활총화다. 총화란 "사업이나 생활의 진행정형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결속 지으며 앞으로의 사업과 생활에 도움이 될 경험과 교훈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생활총화는 1962년 3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후에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황규진 2007, 10). 북한에서 생활총화는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다. 생활총화 시간에는 반드시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토대로 자신의 생활을 평가해야 한다(이금옥의 증언; 서동익 1995, 99). '10대 원칙' 8조 5항에서는 "생활총화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 정책을 척도로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검토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전개하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 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www.kci.go.kr

다. 북한은 생활총화라는 일종의 의례(儀禮, ritual)를 통해 유일체제를 재생산하고 주민들을 결속시킴으로써 북한 사회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총화와 별도로 사업장에서는 일일 사업총화가 진행된다. 일반 사무직장에서는 부서별로,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 또는 분조별로 각 개인과 부서의 하루 사업결과를 평가 분석하는 일인 일일 사업총화를 진행한다(이우영 1999, 44). 생활총화와 정기총회에 빠짐없이 참가해야 한다. 그래야 동맹원들이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자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생활총화는 자기비판, 상호비판으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부 동맹원 사이에서 '너좋고 나좋고' 하는 식으로 비판과 상호비판에 잘 참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판은 발전의 무기이며 뜨거운 동지적 사랑'이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총화를 잘 할 것을 강조하였다(편집부 2005, 48).

북한의 생활총화에 대해 유일사상체계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 비판 방식으로 진행되어 '인간관계의 원자화'를 조장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한 훼손이라는 비판이 있다(서재진 2006, 88).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생활총화는 당과 근로단체가 당원과 맹원들의 모든 업무수행과 사생활을 감시하는 데 가장 전형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조직생활 중 하나인 사상학습은 주로 학습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학습회는 노동자·사무원·청소년 학생들이 주로 학습반 조직을 통해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진행한다. 학습반은 간부학습반과 당원 및 근로자 학습반으로 나눠 구성된다. 당원 및 근로자 학습반은 수준에 따라 높은 반, 낮은 반으로 구분된다. 학습은 주로 '유일사상 교양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에서 이루어지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강령적 교시'와 '고전적 노작' 등 유일사상이 내용이다(문명진 1987, 61~63).

www.kci.go.kr

강연회는 노동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하게 세우고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선전선동으로, 수요일 저녁 '문화의 날'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수요 강연회'로 불린다. 최근 함경북도 연사군에서는 인민반별로 '식량 사정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개최되었고, 양강도 풍서군 여성동맹은 김일성 사망 8주기를 맞아 사상교양 강연회를 개최하였다(좋은벗들, 2008.07.03; 좋은벗들, 2008.07.11). 이와 같이 강연회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학습을 통해 체제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연회와 학습회에 필요한 교재는 당 중앙에서 제작하여 구체적인 학습 방안과 함께 아래 단위로 내려 보낸다. 북한주민들의 사상학습을 위해 제작·배포하는 학습 자료의 표지에는 <표 4>, <표 5>와 같은 지시 및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표 4> 당원용 학습제강의 표지

학습대상: 당원 및 근로자 학습반에 망라된 당원들 학습기일 및 시간: 해당 당 조직으로 학습제강이 배포되는 대로, 실정에 맞추고 일시를 결정해 강의를 1시간 조직해야 한다. 학습방법: 자기 단위의 당원들의 긍, 부정 실례를 잘 묶고, 강의를 열매가 있도록 해야 한다.

<표 5> 당원, 간부 및 근로자용 학습제강 표지

강습기일 및 시간: 간부 4월 3주, 강의 1시간 30분, 당원 및 근로자 4월 하순, 강의 1시간 강습방법: 실정에 맞도록 기관, 기업소 단위 또는 다양한 기관, 기업소를 맞추어 강습을 조직할 수 있다.

www.kci.go.kr

<표 4>와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당원과 근로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학습이 당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회나 강연회의 참가자는 단지 듣고, 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중에 필기를 해야 한다. 또한 책에 강조하는 내용이 있으면, 강의 마지막에 “강의를 끝내기에 즈음해 강조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 그 내용을 토론해야 한다. 토론을 위하여 “질문하는 문제”나 “강의에 대한 문답 문제”등도 있다(미야쯔까 수미꼬 2005, 17-18).

이러한 사상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태도 또한 차이가 있다. “평상시 힘들고 해도, 이런 강연을 들으면 신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는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곤 했다”는 사람(탈북자 K5 증언, 함경북도 출신, 2003년 탈북; 조정아 2006, 99)이 있는가 하면 학습을 받는 동안 ‘잡생각’을 한다던가, 비판을 무릅쓰고 학습에 참가하지 않고 도망가기도 했다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에서는 영화가 사상교양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영화는 종합예술로서 감동을 주기에 호소성이 높다는 장점과 함께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어 대중 교양방법으로는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영화 중에서 김일성의 현지지도 내용인 ‘문헌영화’와 ‘기록영화’를 학습할 것을 강조한다(금성청년출판사 1982, 186-187). 주민들은 영화감상 후 ‘실효모임’을 갖는다. 실효모임이란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을 벌인다는 의미로, 문예작품 특히 영화감상 및 학습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을 생활에 반영되도록 하는 사상교육 방법 중에 하나다.

1976년 8월 11일자『로동신문』에서는 김책공업대학 사로청위원회의 ‘어느 한 가정에서’라는 영화의 ‘실효모임’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를 살펴보면 실효모임에 앞서 사로청위원회는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사상이 무엇이며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생활과 결부해서 생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영화 감상 후 실효모임은 참

www.kci.go.kr

가한 학생들 중에 3명이 사로청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여 연설을 하고, 참가한 다른 학생들이 감상문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최대석・김종수 2006, 96 재인용).

당·근로단체 분공(分工)은 당원과 근로단체 맹원들의 조직생활의 기본형식이다. 조직생활에 있어 분공은 당과 근로단체가 제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원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를 말한다. 분공은 고정분공과 임시분공으로 구분되며, 고정분공은 일정한 기간 고정적으로 맡겨지는 사회적 책임이며, 임시분공은 당과 근로단체가 그때그때 주는 업무이다. 당과 근로단체의 분공은 주민들이 당원과 근로단체 맹원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여 정치적으로 각성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생활의 방안이다. 당과 근로단체는 당원과 맹원들에게 분공을 부여하고 그 수행정도를 '총화'하여 일상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한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직생활을 하루 단위로 살펴보면,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공직적인 조직생활은 출교·등교 후 독보회로 시작한다. 독보회란 아침마다 신문 기사 같은 것을 읽어주는 것을 말한다.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아침 방송보도나 당보를 보는 것 즉 독보회로 하루를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금성청년출판사 1982, 90). 북한 군대에서도 매일 아침에는 소대 혹은 중대 단위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의 신문을 소대장이나 부소대장, 선전원 등이 낭독하는 독보회를 30분간 갖는다. 이 독보회가 끝나야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다(이대근 2003, 169). 심지어 외양선 선원들도 아침 독보회로 하루를 시작한다(서동익 1995, 125).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상 업무가 진행된다. 오후 작업이 끝나면 작업 반위별 즉 일반 사무실에서는 부서별로,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별로 일일 작업총화가 진행된다. 작업총화에서는 하루 작업 결과를 평가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생산독려와 함께 직장생활 태도 등을 점검한다.

www.kci.go.kr

주간(週刊) 단위로 북한주민들의 조직생활을 살펴보자.

대학생들은 월요일에는 오전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상학검열'을 받는다. 상학검열은 대학 참모와 교원들이 나와 중대단위로 복장, 이발 상태 등을 검사하면서 강의를 받을 준비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다. 화요일, 금요일에는 강의 전, 후에 김일성 노작과 김정일 문헌학습을 하며, 수요일에는 강의 후 정치사상 강연회가 실시한다(서동익 1995, 35). 당원의 경우 정규학습은 매주 1회 3시간 이상 진행하는 당 정책학습과 월 2회 8시간이상 진행하는 혁명역사학습 및 덕성실기학습으로 구성된다. 당 정책학습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제시한 당원 정책학습 강령과 제강에 의해서 당 세포 정책학습반 단위로 진행된다(정욱이 2007, 66). 일반당원 학습은 시·군위원회 단위로 차이가 있으나 실정에 따라 매주 2시간 이상 보장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요일과 금요일로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 수요일 강연회와 학습을 받지만, '문화의 날'로 정해 한 달에 1~2회 영화감상을 하거나 취미, 오락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교원들은 목요일 강연회를 통해 사상학습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목요 교원강연회에는 학교 초급당 비서나 상급에서 내려 온 중앙당 부장이나 부부장, 대학학장, 대학의 당 비서 등 간부들이 출연한다. 이 강연회에서는 현 시기 당에서 내놓은 방침 지시 등을 전달하고 국제정세와 남조선 정세, 또한 교수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과 부정 자료를 공개한다(김봉기 외 2007, 82).

금요일은 금요노동이 있다. 금요노동은 각 기관 간부들과 사무원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업무를 전폐하고 건설장, 공장, 협동농장 등에 나가 의무적으로 육체노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매주 금요일에 실시한다고 하여 통상 금요노동이라고 부른다. 금요노동은 1970년대 후반에 매주 1회씩 의무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도록 한데서 시작됐다. 또한 1959년 3월 내각결정 18호로 사회 의무노동제를 공고한 이후 학생, 사무원들은 매년 일정한 시간 동안 의무노동에 참여하

www.kci.go.kr

고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 연 10주, 중학교 고등반 학생은 8주, 중등반 학생은 4주, 그리고 사무원은 4~6주간 의무노동에 참가한다(민족21엮음 2004, 189, 192).

중학교, 대학교, 공장·기업소를 통틀어 토요일을 '청년동맹의 날'이라 부른다. 중학교 청년동맹은 매주 토요일의 정규수업시간 1~2시간을 빌려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에서는 오전 강좌가 끝난 오후 시간에 청년동맹 활동을 벌인다. 공장 내 청년동맹은 매일 퇴근 전인 5~6시 정기학습을 하고, 토요일에는 청년학교를 운영한다(이경수 2007, 68).

군대에서도 토요일은 학습 집중의 날이다. 토요일은 일명 '정치일'로 불릴 정도로 군관 및 하전사 대상으로 정치사상 교육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군대는 정기적인 사상교육으로는 중대 이하 군관 및 하전사를 대상으로 매주 월, 화, 목, 토요일 2시간씩 주 총 8시간에 걸쳐서 하는 '정치학습'이 있다(이대근 2003, 168).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조직생활은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시간별, 요일별로 독보회, 일일총화, 학습회, 강연회, 문화모임, 주간총화 등 정연하게 체계화되어 있다. 실로 빈틈없는 조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생활 체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지속되고 있는지가 북한체제의 안정화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IV. 북한의 경제위기와 조직생활의 이완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북한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극심한 경제침체, 그에 따른 배급체계의 붕괴는 공식적인 법률, 규정, 제도의 권위가 약화되고, 이를 비공식적인 관계가 대체해 가는 '공식 시스템의 퇴화' 현상을 낳았다. 당 및 국가 간부층의 탈계획적 행위가 확산되며, 이들에 대한 중앙 당 및 국가의 통제가 약화된

www.kci.go.kr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탈계획적 경제행위가 관료뿐만 아니라 전 주민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석기 2003, 84). 이런 상황으로 인해 심지어 북한주민의 90%가 장사를 할 정도로 장사는 보편화되었다는 연구가 있다(김영윤 외 2007, 107).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평양시에서는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고 장사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장사를 할 여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심하다고 한다. 공장에 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신 공장은 노동자들이 출근을 한 다음에 오후에 식량을 구하러 퇴근하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 지방에 식량을 구하러 가려고 할 때에 여행허가증을 발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다(새터민 E의 증언; 이석기 2003, 183).

이 같은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긴 하지만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가 북한주민들의 조직생활에 이완을 가져온 것은 확실해 보인다. 북한 전체적으로 정치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낮아지고 조직생활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직생활에서 핵심을 이루는 생활총화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조직생활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으며, 당원도, 노동자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어떤 때는 모이지도 않고 당 비서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새터민 B증언; 정일영 2006, 92). 입당 권유를 받아도 당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입당절차를 밟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당원이 되면 당 사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에 장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래서 1990년데 후반에는 당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탈북자 D증언; 이석기 2003, 158).

북한의 조직생활의 이완현상은 학교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난의 행군기를 지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당국 차원에서 공교

www.kci.go.kr

육의 정상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 10년간 지속된 교육적 공백과 퇴보를 단기간에 회복하기에는 경제난이 남긴 상흔이 너무 깊다(이교덕 외 2007, 139). 북한 당국은 학교 교원에 대한 배급을 폐지했을 뿐 아니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크게 삭감했다고 한다. 만약 이대로라면 교원들의 생계는 물론 학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교원들마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무직치고' 학교를 떠나 버리도록 방치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 질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내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못 보낼 정도라고 한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안보내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한다. 가령 학생 1명당 토끼 가죽을 7마리씩 내라, 페인트를 내라, 땔나무를 내라 등등 온갖 것을 다 내라고 하여 등교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시선 증언; 서재진 2007, 35).

모범을 보여야 할 당원들의 조직생활에서도 이완현상이 나타났다. 중앙당의 지시와 명령이 말단 세포단위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중도에 흐지부지되기 때문이다. "중앙당 차원의 정치학습 계획이 서더라도 지방당이나 하급당 간부들이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을 정치학습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이에 대해 중앙당이 지시 미이행으로 강력한 처벌 조치를 내렸지만 이런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이교덕 외 2007, 24). 이런 상황으로 인해 김정일도 식량난이 극심할 때 당조직도 사상교양 사업보다는 식량문제를 푸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할 정도이다.[1)]

1) 북한의 중요 공업도시인 함흥시당에 대한 지도사업에서 김정일은 당이 '공뜬' 교양사업보다 눈앞에 닥친 식량문제를 풀어내는 실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함흥이 중요공업도시이지만 정무원에서도 식량을 따로 공급할 형편이 못되오. 그렇다고 이 엄동설한에 식량문제를 대책하지 않고 <동면>할 수는 없소. 어떻게 하나 시당자체로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시당 확대집행위원회는 공뜬 교양사업보다도 눈앞에 들이닥친 난관을 풀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문제를 걸고 분투해야 합니다."(백남룡 2008, 3)

www.kci.go.kr

근로단체인 청년동맹 조직생활도 경제난 이후 생활총화가 이완되었다. 생활총화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로, 친구들 간 '담합'을 통해 자아비판이나 상호비판을 쉽게 벗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김래은 2004, 64).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청년들의 일탈 행위가 증가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청년동맹은 과외교양사업부를 중앙을 비롯해 도·시·군단위 조직에 설치하였다. 청년동맹은 과외교양사업부를 통해 강도·절도·강간 등 범법행위자와 직장 및 학교결석이 잦은 자, 자본주의 풍습을 유포하거나 모방하는 자 등 불량청소년을 교양·선도하고자 하였다(김종수 2006, 236).

북한주민들의 생활과 조직생활의 기층인 인민반의 기능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북한에서는 인민반 조직생활이 물리적인 통제 수단을 통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평양의 경우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으면 지방으로 추방한다고 협박하고, 지방의 경우 노동단련대로 보낸다고 협박한다. 기존의 사상교양을 통한 자발적인 조직생활을 이끌어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채경희 2007, 90).

북한사회 전반에서 조직생활이 이완되는 상황이지만 여성동맹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생계가 직장에서 주어지는 월급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하는 부녀자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는 상황으로 인해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달라지고 있으며(서재진 2004, 129), 여성들에 조직생활이 강조되어 여성동맹 활동이 강화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마감되고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기 시작한 1998년 하반기부터 북한 당국이 사회통제를 강화하면서 여성동맹원들에 대한 동원도 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 이후에는 여성을 대거 여성동맹에 가입시키고, 여성동맹의 노력동원 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침도 내려졌다. 때문에 원래는 가장 '헐한' 여성동맹의 총화가 가장 '혹독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www.kci.go.kr

이미경·구수미는 신의주, 혜산, 청진 출신 탈북여성 4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생활총화를 비롯한 조직생활에 대한 북한 여성들의 의식은 이를 부정하기 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키려고 했다고 한다. 생활총화나 사회노력동원에 비판하지 않을 정도로 참여했고,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로 참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이경미·구수미 2006, 223-226).

> "1995년도에 제일 어려운 최악의 시대였잖아요? 고난의 시기라고, 그때는 조직생활도 다 느슨해졌어요.…… 1998년 지나서부터는 좀 그래도, 1999년도는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때 또 다시 조직생활이 쪼였죠 …… 일시적으로 경제난이지, 우리 장군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것을 주입을 항상 받아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느슨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조직생활을 안했다가 좀 괜찮아졌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젠 다시 충성을 해야 된다, 조직생활 열심히 참가해야 된다, 그런 의식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탈북자 H3 증언, 2003년 11월 탈북; 조정아 2006, 101).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의 경제위기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총화를 비롯한 조직생활에 전반적인 이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완현상은 조선노동당과 근로단체의 일정한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식량난과 경제상황을 파악하면서 조직생활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극심한 식량난에서 식량공급을 해 주지 못하는 북한당국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성적인

www.kci.go.kr

경제난에서 언제까지 이러한 조직생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V. 결론

북한은 조직이 지배하는 사회로 집단주의 원칙에 근거해 전 사회가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누구나 집단화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연령집단과 생활주기에 따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상교육을 통해 주민들을 통합시켜 나간다. 태어나면서부터 조직에 소속되어 일생동안 중첩적인 학습망으로 이어지는 '조직화된 강제'의 상황에서 규범적 압력을 받고 살아가는 중이다(김종수 2008, 175 재인용).

그러나, 북한은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가에 의한 공급통제 체제가 허물어지고 제2시장이 성행하고 있다. 국가가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함에 따라 국가에 의한 통제,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조직생활에 의한 통제가 이완되고 있다. 즉 매주 진행되는 생활총화, 학습회, 강연회에 대한 참석율이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과 근로단체, 인민반과 같은 사회 통제기구들의 조직생활 규범이 완화되는 현상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통제가 약화된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 불만요소를 조금은 해소함으로써 내적 통합을 꾀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김영윤 외 2007, 109). 그러나 만성적인 경제난은 그 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시킬 것이며, 이러한 불신은 조직생활에 대한 당위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의 주민들의 '생애주기'적 조직생활은 크게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과 근로단체 등의 조직이 비록 과거에 비하여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조직생활 자체가 붕괴하였거나

www.kci.go.kr

주민들로부터 멀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확실치 않다. 즉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체제는 주민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자발적·강압적 통제를 통해 체제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내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들 열성적이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나,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하여 참여를 종용하고 그에 대한 요해사업을 진행한다는 증언 등은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조직생활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준다(정영철 2006, 147). 또한 생활총화 참석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조직에서는 직장이 아닌 거주지역에 와서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황규진 2007, 25). 경제난 이후 여성동맹과 인민반의 경우 오히려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장을 이탈한 주민들이 많아진 것과 주부들이 대부분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의 결과로 보인다.

북한의 사회통제는 각종 공안기구, 인민반 등을 통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통제가 이완되고 있어서 탈북자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제유지를 위협할 정도의 사회일탈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전현준 외 2006, 210).

www.kci.go.kr

< 참고문헌 >

구수미・이미경, 2006, “경제위기 이후 북한 도시여성의 삶과 의식”, 최완규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서울: 한울.

김기순 외, 2002, 『북한 사회의 이해』,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김래은, 2004, “북한의 ‘새세대’ 특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김봉기 외, 2007, 『붉은 넥타이』, 판문점트레블센타.

김일성, 1996, “함경북도당위원회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함경북도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1992년 9월 4일), 『김일성 저작집』, 4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1997a,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노선”(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김정일 선집』, 1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 1997b,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 선집』, 1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 1998a,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당 근로단체사업부 일군 강습회 참가들에게 보낸 서한, 1985년 4월 30일), 『김정일 선집』, 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 1998b,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5월 24일), 『김정일 선집』, 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 2000,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년 6월 19일), 『김정일 선집』, 1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종수, 2006, “북한 ‘청년동맹’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 동

www.kci.go.kr

국대 박사학위 논문.
——, 2008, “북한 주민생활과 사상교양; 사상교양 공간(空間)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통권 156호.
노귀남, 2006, “북한의 일상생활”,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사회』, 경인문화사.
로동청년, 1993년 2월 25일.
문명진, 1987, 『당사업경험』, 사회과학출판사.
미야쯔까 수미꼬, 2005, “북한 내부문서를 통해서 본 북한사회 분석 및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 논문.
민성길, 2000, 『통일과 남북청소년』, 연세대 출판부.
민족21 엮음, 2004, 『북녘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선인.
백남룡, 2008, 『봄의 서곡』, 문학예술출판사.
사회과학원, 1975,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197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 에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당이 이룩한 경험』 1, 사회과학출판사.
서동익, 1995, 『인민이 사는 모습』, 2권, 자료원.
서재진, 2007,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통일연구원.
신한승, 1994, 『북한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 공보처.
이교덕 외, 2007,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통일연구원.
이경수, 2007, “소년단부터 조선로동당까지”, 『민족21』, 12월호.
이대근, 2003, 『북한군부는 왜 쿠테타를 하지 않나』, 한울.
이미경, 2006, “경제난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변화와 한계: 탈북 여성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여성과 가족』, 경인문화사.
이석기, 2003,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행태의 변화”,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이승훈·홍두승, 2007,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우영, 1999,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통일연구원.

www.kci.go.kr

임순희, 2002, “근로단체·청년·여성”, 서재진 외, 『김정일연구(Ⅱ)』, 통일연구원.
임순희, 2006, “소설을 통해 본 북한여성의 삶”,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여성과 가족』, 경인문화사.
전현준, 2003,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 외, 20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통일연구원.
정영철, 2006, “북한의 사회통제와 조직생활”, 『북한의 사회』, 경인문화사.
정우곤, 2000, “김정일 체제의 사회통제와 주민의식 변화 연구”, 『북한실태Ⅱ: 2000년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통일부.
정욱이, 2007, “북한의 대내 선전선동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정일동, 1991, “북한의 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정일영, 2006, “조선로동당의 공장·기업소 조직에 대한 ‘통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정아, 2006,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통일연구원.
좋은벗들 엮음, 2000,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정토출판.
채경희, 2007, “북한 ‘인민반’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대석 · 김종수, 2006, “북한 권력승계 시기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9권 1호.
통일부, 2007, 『2007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편집부, 2005, “조직생활지도를 잘하자”, 『조선녀성』, 567호.
편집부, 2006, “평양시 인민반 운영 실태와 주민생활”, 『북한』, 4

www.kci.go.kr

월호.
편집부, 2008, “녀맹, 수령님 서거 14돐 맞아 유훈 고시 관철에 우리가 앞장서자”, 『오늘의 북한소식』, 165호(7월 11일).
편집부, 2008, “연사군, 식량 사정에 관하여 강연회”, 『오늘의 북한소식』, 159호(7월 3일).
황규진, 2007, “북한의 생활총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Ronald Weitzer, 2002, *Deviance and Social Control.* McGraw-Hill.

www.kci.go.kr

North Korean Organization Life and Evaluation of Durability

Kim, Jong-su
(Reseacher Fellow of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Abstract

Although North Korea has suffered from difficulties of obtaining food since the deluge of 1995 and financial difficulties which have been drawn out for more than 20 years, it is still alive and well without severe symptom. The North Korea of today failed social control by demand and supply and has no choice but to control people by an organization life and suppressive mechanism. Despite of domestic and foreign crisis, it is the result of the effective system of social control over people for North Korea to maintain the social unity.

This paper has two purposes: first, an examination of organization life, one of instruments of civilian control, in the level of 'life cycle'; secondly,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dur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by analyzing how life-harmony, lecture meetings, and study meeting, which are programs of organization life, are actually being operated.

Keywords : Organization life, Social control system, Transmission belt. Youth league

www.kci.go.kr